

태클(tackle)→덤비기
 터닝슈트(turning shoot)→돌며쓰기
 토스(toss)→튀기기(배구)
 티케이오(T.K.O.)→주심 결정
 팀워크(team work)→(편)짜임새
 파울볼(foul ball)→빋나간 공
 파울팁(foul tip)→스친 공 잡음
 파울플라이(foul fly)→빋른 공
 페어볼(fair ball)→산 공
 페어플라이(fair fly)→산 뜬공
 프리스로(free throw)→자유투
 프리킥(free kick)→자유축

핀치러너(pinch runner)→대(리)주자
 헤딩(heading)→머리받기
 홈(home)→본루(야구)
 홈런(home run)→본루타
 홈스틸(home steal)→본루뺏기
 홈인(home in)→득점
 (문교부 : 국어 순화 자료, 1983에 의함. 표기는 원칙적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. 단, 앞으로 있을 관용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다.)

□ 국어 오용 사례 □

☆ 주체 존재 '-시-'의 남용

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 대접하느냐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체제를 존재법이 라 한다. 여기서 특히 話者が 叙述의 主體를 높여 대접하는 것을 주체 존재법이라 하며, 그 경우 대체로 서술어의 어간에 '-시-'를 첨가하여 표현하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.

그런데, 원칙적으로 서술의 주체를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비교 대상은 話者로 話者が 자기와 대비하여 主體를 높여야 할 경우에만 '-시-'를 첨가시켜야 하나, 실제 언어에서 잘못 사용되는 수가 있다. 例컨대, “×× 문화 방송에서 준비한 어린이날 기념 놀이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지금 ○○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.”(1986. 5. 5. MBC 출발 새아침)

하는 방송 리포터의 언어에서는 主體가 話者와 同一人이므로 '-시-'가 첨가될 수 없으나 '-시-'를 첨가시키므로, 자신을 스스로 존재한 듯지 못할 결과를 가져왔다.

이와 관련하여 또 언급해야 할 경우로 3인칭에 대한 존재가 있다. 즉 主體가 3인칭으로 話者보다는 높으나 聽者보다는 낮은 경우, 위의 원칙대로라면 '-시-'를 첨가시켜야 되나, 이 때는 聽者를 고려하여 '-시-'를 쓸 수 없는 것이다. 따라서 선생님 앞에서 하는 다음의 말은 잘못 사용되는 例라 하겠다. “선생님, 선배님이 그러시는데, 곧 비가 온대요.” (편집실)

☆ 방송 언어에서의 사투리 사용

‘르’불규칙 용언 ‘빠르다’, ‘다르다’가 활용할 때, 때로 잘못 발음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. ‘빠르다’의 활용형을 ‘빨른’, ‘다르다’의 활용형을 ‘달른’으로서 습없이 쓰고 있는 다음의 경우가 그 보기이다. 즉, “차 법근 선수의 빨른 발로도……” 운운하는 운동 경기 중계 방송이 있는가 하면, “이 현상과는 성격이 좀 달른 경우가 되겠습니까만……”하는 TV 사회자(KBS 김 ×× 어나운서)도 있는 것이다.

‘파르다’, ‘다르다’가 관형사형으로 쓰일 때는 ‘다른’, ‘파른’으로 발음하여야 할 터인데, 그렇지 않은 것이다. 방

언에 따라 ‘다르다’는 ‘달르다’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표준어는 엄연히 ‘다르다’이기 때문이다.

표준어의 지리적 기준이 되는 서울 지방에서의 표준어 파괴 현상이랄 수 있는 이 오용의 사례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위 두 낱말의 경우, 기본형을 각각 ‘빨르다’, ‘달르다’로 고쳐가야 할 국면을 초래하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. 각종 언론 매체의 종사자는 물론(특히 구어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임) 교육받은 지식 계층에서부터의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본다.

(경북 김천시 김천 여고 교사 關庚卓)

○ 해외 단신 ○

옥스포드 英語 사전 보완 끝내

영국이 자랑하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(Oxford English Dictionary)의 최종 증보판이 최근 출판됨으로써 이 사전의 현대화 작업이 일단락됐다. 이번에 나온 증보판은 4번째로 나온 것으로 Se로부터 Z까지의 새로운 어휘를 담고있다. 1천 5백 페이지의 이 증보판은 30년에 걸친 옥스포드 영어 사전 현대화 작업의 결정판으로 런던 더 타임즈紙는 “금세기에 영어로 쓰인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”이라 격찬했다.

원래 옥스포드 영어 사전의 편찬 작업이 시작된 것은 1858년으로 제임즈 머레이卿에 의해 70년 후인 1920년대에 완성됐다. 1938년 첫 증보판이 나왔으며 옥스포드大 출판부가 57년부터 본격적인 증보 작업에 착수, 최근에 마무리한 것이다.

이 새로운 증보판 편찬 작업은 뉴질랜드 출신의 젊은이 로버트 버치필드씨가 맡았다. 그는 당초 이 작업을 7년만에 끝낼 계획으로 4명의 전담 스태프와 함께 증보판 편찬에 착수했다. 그러나 결국은 근 30년이 걸려서야 이 일을 끝낼 수 있었고 여기엔 총 57명의 스태프와 전세계의 신문, 정기 간행물, 도서등을 검토하는 약 1백명의 프리랜서가 동원돼야 했다.